

## 양육자조금제도 적극 활용하는 한해돼야 ...

김정주/건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김정주

건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흔히들 우리 농산물은 국제 경쟁력이 없다고 쉽게 말한다.

이는 농산물의 경쟁력을 국제간의 생산비를 비교하여 따지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산

물의 생산비라는 것이 해당국가의 농장도 가격을 의미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비교는 소비자 지불가격의 비교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산물의 소비자 가격에는 수송비, 관세, 기타 조작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 없이는 외국의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국산 농산물의 가격 이외에도, 품질(맛), 안전성, 전통적인 식문화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산물의 품목별경쟁력을 따지지 않으면 비교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녹용의 경우 소득탄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이 가격보다는 품질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소비자들의 소비행태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캐나다산이나

뉴질랜드산 녹용이 가격 면에서는 다소 싸다하지만 소비자들이 국내산 녹용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관심만 갖는다면, 그리고 녹용을 약제로 쓰는 한의원에서 정직하게 평가만 한다면 아무리 값싼 녹용이 수입될들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국산 녹용이 수입 녹용에 비하여 차별화될 만한 요소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얼마나 하였는가? 녹용의 정직한 유통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자문하고 싶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개별농가가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해주길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양육인들의 자구적인 노력만이 해결책이다.

이는 엄청난 돈이 드는 일이다. 당연히 그 돈은 농가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양육농가들이 녹용의 생산량에 따라 조금씩 돈을 각출하고 정부가 일부 보조하는 자조금제도(Check-off)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낙농업계에서는 이 자조금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등에서 우유의 높은 가치를 선전하고 있다. 양육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양육 산업 발전을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